



『카를 하임의 성경의 세계상』

카를 하임 지음 | 박규태 옮김 | 홍성사

◎ 최태면(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교수)

이 책은 20세기 초반부터 현대과학을 상대로 기독교신앙을 변호했던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카를 하임(Karl Heim)의 *Die Weltanschauung der Bible*(1921)의 번역이다.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인 1980년이다. 한신대 정경연 교수가 편집한 북음주의 신학총서 제24권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성서의 세계관』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반부터 현대과학을 상대로 기독교신앙을 변호했던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카를 하임(Karl Heim)의 *Die Weltanschauung der Bible*(1921)의 번역이다.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인 1980년이다. 한신대 정경연 교수가 편집한 북음주의신학총서 제24권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성서의 세계관』이 바로 그 책이다. 번역자는 강한표 교수였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평자도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박규태 독사에 의해 새롭게 번역·출판된 이 책은 원래의 텍스트에 더하여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란 개인의 종말에 관한 하임의 설교문을 부록으로 엮은 것이다.

카를 하임은 1874년부터 1958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지명한 신학자로서 루터교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14년부터 빈 대학에서 루터교 신학에서 가르쳤다. 그의 관심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이나 현대과학의 세계상으로 북돋음을 서를 '비신화화' 하여 북음의 진리를 축소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하임은 현대과학 때문에 성경의 진리틀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오류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20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진정한 신(神)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자 했다. 그의 노력은 1931년부터 1952년까지 6권으로 출판된 『개신교 신앙과 현대사상』(Der evangelische Glaube und das Denken der Gegenwart)으로 결실을 보았다. 그가 죽은 후, 독일에서 <카를 하임 협회>가 조직되어 여러 후학이 현대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매년 <카를 하임 상>(Karl-Heim-Preis)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이 협회에서는 <신앙과 사상>(Glaube und Denken)이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카를 하임의 성경의 세계상』은 부록을 제외하고 4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이다. 제2장은 <타락 그리고 그 죄의 유산>, 제3장은 <십자가의 말씀>, 제4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보니 이 책의 논지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도도 놀랍게도 일치한다. 이 책은 하임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직후인 1919년 초여름에 펜스터 개신교 회의 요청으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대중적

인 강연문제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하임은 이 책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그림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1장은 <창조>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하임은 1차 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신하신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창조의 사실과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그는 당시에 밝혀진 자연과학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그는 인간이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어미어미한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인지, 아니면 생명 없는 거대한 형체에 불과한지를 묻는다. 만일 이 우주가 요즘 기이아 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그 안에 모든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면 신과 인간과 세계는 서로 모순 없는 하나가 될 것이다. 반면에 플라톤의 생각처럼 세계는 조잡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라져 버릴 카오스에 불과하다면 우리 인간은 이 물질세계에서 어떤 위로와 안식도 찾을 수 없게 된다. 하임은 이 두 극단적인 세계상 사이에서 중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상이다. 하나님은 세계와 뒤엉켜 있거나 옹합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계를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보살피고 계신다. 세계는 없어져 버릴 원소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선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영원한 피조세계이다. 이러한 성경의 창조사상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이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의 2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룬다. 하임은 패전의 허탈함과 상처 속에서 사는 독일인들이 타락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살아가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세계의 만물이 무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죽고 죽이는' 생존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도 낙관론자는 이 무자비한 투쟁이 신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것이



다. 반대로 비판론자는 이러한 투쟁이 생의 본질이며 그에게서 벗어난 길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하임은 성경에서 타락을 보는 가장 심오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를 따르면 모든 민족에게 존재하는 낙원과 황금시대의 이야기와 그 후에 들어온 죽음과 전쟁의 이야기는 신한 창조 이후에 일어난 타락의 사실을 증거해 준다. 타락의 결과 인간은 황폐해진 땅과 왜곡된 남녀관계와 육체의 죽음에 종속되었다. 하임은 이러한 타락의 결과를 사 회주의 같은 이념이나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3장에서 하임은 인종과 계급 간의 증오와 학살을 종식하는 길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인류가 처한 현실을 '죽음에 이르는 추락'에 비유한다.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증력에 의해 서로 파괴하 면서 추락하고 있다. 모든 인류는 마치 끈에 묶인 것처럼 이 동반추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끈 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

셨다"(고후 5:19)는 성경의 길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많은 지식인 은 거부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감격했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믿음은 거절했다. 그러나 하임은 오히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받아들인다고 본다. 하임이 당시의 독일인들에게 한 경고는 불과 20년 후에 일어난 2차 대전을 통해 입증되었다. 1920~30년대에 독일의 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 만, 그것으로는 인종주의의 광기와 전쟁을 막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하임은 이 세상의 최종적인 상태가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의 무력에 의해 평정된 사회도 아니며 카우츠키가 믿은 것처럼 계급과 소유가 철폐된 사회에서 누리는 풍요 한 물질과 성의 자유도 아니라고 진언한다. 그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은 성경이 말하 는 인간 현존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성경은 최후의 날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최후 의 심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이 드러난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 때 세상의 모든 형상 은 뜨거운 열에 의해 녹고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세계는 시간의 유한함과 허무를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상이 보여주는 세계의 완성된 모 습이다. 이모써 카를 하임은 이 책을 읽는 한국의 독자와 90년의 시간적 간격에도 사회의 변화 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세계상을 독자들에게 제시해 준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에 타락의 그늘이 드리웠고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 그리 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회복된 세계가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 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시대에도 타당한 성경의 메시지로,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인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서 개인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 사이에 있는 <중간상태>(the intermediate state)에 대한 하임의 견해는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임은 루터신학의 전통에 서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구원을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도를 알 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에 중간상태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베드로전 서 3:18~20과 4:6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 영혼으로 지옥에 가서서 회개 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이후에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본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카를 하임의 성경적 세계상과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의 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칼 빈은 『기독교강요』(1536년판)에서 사도신경을 주해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19절을 그리스도의 구 속의 능력이 이미 죽은 모든 영혼에 실했었다는 사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에게 이 본문 말씀을 '지옥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최태연 박사대 기독교철학 교수이며 인기독교재 독사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 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총연합회 집행위원이며 세계관운동 공동교장개발위원장과 CUP 출판위원, 한국기 독미술인협회 이튼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학연구소 연구사로 활동하고 있다.